

16.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 2022년 10월 27일
 - 제 안 자 : 허시영, 김정옥, 김지만, 류종우, 이영애, 이재숙, 이태손,
황순자 의원
 - 회부일자 : 2022년 10월 31일
 - 상정일자
 - 대구광역시의회 제297회 정례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2년 11월 23일) : 원안 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허시영 의원)

☐ 제안이유

-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상위법령과 본 조례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 조례의 건축물 벽면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간판에 대한 규정 중에서 지나치게 강화되어 있는 일부 규정을 완화하는 한편, 상위법 인용사항에 대해 다소 모호하게 표현된 자구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등 옥외광고물을 통해 시민들의 자유롭고 활기찬 경제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의 운영에 기여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건축물의 벽면을 이용한 광고물 중 업소에 설치하는 간판 이외에 건물 전체에 대한 광고 또는 타사광고 등의 표시를 위한 목적의 간판에 대해 6층 이상 15층 이하에만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저층 건축물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지역에도 벽면이용간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저높이 규정을 4층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5조제2항).

3.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김건호)

-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규정을 완화하고 일부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제도의 운영과 상위법에서 정한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임.
- 안 제5조제2항제2호가목에서는 본 조례에서 정한 벽면에 설치되는 간판의 경우 “설치 위치는 건물의 4층 이상 15층 이하로 하며, 표시 면적은 225제곱미터 이내, 세로 길이는 건물 높이의 2분의1 이내로 한다.” 라고 규정하였는데
- 이는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범위를 기존 “6층 이상 15층 이하”에서 “4층 이상 15층 이하”로 확대하는 것으로, 저층 건축물 벽면 이용간판 설치와 저층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범위를 규정한 것은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과 도심의 미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인 만큼 불합리한 규정은 완화하되 실효성 있는 옥외광고물의 관리와 정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그밖에 안 제5조제1항 및 안 제5조제2항제2호의 각 목 외의 일부 조문을 수정한 것은 상위법 인용사항에 대한 조문정비와 일부 조항의 표현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